

# 1. 출국전 준비

## ▶여권과 비자

여권은 만료기간이 남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갱신하도록 한다. 비자는 입학허가서(DS2019)를 받는대로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대사관에서는 예약을 받아 비자 심사를 하기 때문에 예약을 늦게 하면 원하는 날짜에 심사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DS2019를 받은 후이기 때문에 대개 거절되지 않고 쉽게 승인된다.

## ▶DS2019

국적, 생년월일, 영문 성명, 출생도시, 공부하게 될 학교와 신분 등을 나타내며 비자심사와 입국심사 시 쓰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CSU에서 메일에 첨부하여 학생 개개인에게 보내주고 원본을 우편으로 모교로 보내준다.

## ▶SEVIS Fee

미국을 방문하는 국제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모든 국제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지불해야 한다. DS2019를 받은 후 미국 이민성 홈페이지에서 지불하게 되며 비용은 \$200으로 비자카드나 마스터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다. 영수증을 반드시 인쇄하여 갖고 있도록 한다.

## ▶약간의 옷가지

당장 입을 옷을 몇벌 챙기되 많이 가져올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이곳에서 살 수도 있고 가격도 한국에 비해 싼 편이다.



프레즈노의 하늘은 항상 맑고 푸르다

특히 이곳은 1월에도 춥지 않기 때문에 겨울 옷은 하나 정도만 가져오도록 한다.

### ▶송금받을 계좌

대부분의 경우 교환학생은 여전히 학생 신분이고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송금받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송금 받을 계좌가 필요한데 한국에서 만들수도 있고 현지에서 만들수도 있다. 한국에서 해결하고 싶으면 시티은행을 이용하면 된다. 시티은행 계좌에 한화로 예금해 두면 미국의 시티은행 ATM에서 수수료 \$1을 내고 달러로 인출할 수 있다. 이 때는 인출 당시의 환율로 계산되며 시티은행 ATM은 미국 내 세븐일레븐 편의점안에 설치되어 있다. CSU 정문 앞에도 시티은행 ATM이 있다. 시티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현금카드와 체크카드를 받게 되는데 체크카드는 현지에서 이용할 수 없는 곳도 많아 불편하다.



정문 앞 세븐일레븐과 시티은행 ATM

미국에서 계좌를 만들면 한국의 은행에서 미국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야 한다. 이 때는 수수료도 비교적 비싼 편이고 송금 받는대까지 하루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 걸리기 때문에 한번에 큰 금액을 받는 편이 좋다. 현지 은행을 이용하면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데 편리하다.

### ▶VISA 혹은 MASTER 카드

미국은 VISA나 MASTER카드가 아니면 결제할 수 없는 곳이 많고 특히 인터넷을 통해 구매할 경우에는 VISA나 MASTER카드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인 명의의 카드가 있으면 가져가도록 하고 없을 경우 가족 카드를 준비하거나 부모님 명의의 카드를 빌리는 것이 좋다.

### ▶어답터와 상비약

전압 어댑터(220V > 110V)가 필요할 것이다. 흔히 돼지코라고 불리는데 미국은 110V 전압을 쓰기 때문에 한국의 220V 전자제품을 가져와서 사용할 때는 어댑터가 꼭 필요하다. 한국에서 쓰는 220V 멀티탭에 어댑터를 사용하면 하나의 어댑터로 많은 한국 전자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되어 편리하다. 종합감기약이나 소화제 등 상비약을 준비하는 것도 좋다.

## 2. Fresno로 가는 길

대구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려면 인천공항 리무진이 가장 편리하다.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근처에 가면 터미널이 두개 있는데 그 중 동대구역 맞은편에 있는 터미널)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 예약을 하는 편이 안전하다. 최근에 생긴 서울역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기차편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어느 편이든 늦어도 출발시각 2시간 전까지는 공항에 도착해서 수속을 밟아야 한다.

나는 샌프란시스코를 경유하여 프레즈노로 오는 비행기를 탔는데 경로는 이것이 가장 일반적일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국내선 터미널로 이동하여 다음 비행기 시간을 기다리게 되는데 입국 심사와 여러가지 절차가 있어서 그리 지루하진 않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DS2019인데 이것은 CSU에서 학생에게 내 주는 일종의 입학허가서로 학생비자를 내주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입국 심사 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일행 중 한명이 DS2019를 가져가지 않아서 곤경에 처한 적이 있다. 시간과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샌프란시스코나 LA에서 며칠 머무르면서 미국의 대도시를 경험해 보는 것도 좋지만 봄방학 또는 여름방학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프레즈노 공항에 내리면 숙소로 이동하면 된다. 택시를 이용해서 바로 계약해 놓은 숙소로 가거나 아직 숙소가 없다면 공항 여기저기에 있는 호텔홍보물들을 보고 전화를 걸어 픽업을 요청할 수 있다. 나는 RAMADA 호텔에서 하루를 묵었는데 학교와 그리 멀지 않고 4인실을 제공하였다.

## 3. 어디서 살까

우선 '학교 안'이나 '학교 밖'이냐를 선택해야 한다.



학교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옵션은 기숙사 한가지밖에 없다. 기숙사는 1인실과 2인실이 있고 남녀는 같은 건물을 쓰며 구역이 나뉘어져 있지만 규제가 있지는 않다. 가격은 1인실과 2인실에 따라 다르고 일주일에 식사를 몇번이나 할 것인지를 정하는 Meal plan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편차가 큰 편인데 대략 \$3,500 ~ \$4,500 정도이다. 기숙사에 살면 2인실을 쓰는 경우에 항상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룸메이트와 친하게 지낼 기회가 있고 무엇보다 학교에서 가깝다는 장점이 있다. 식사를 제공받는 것도 큰 장점이다. 홀에서는 시낭송, 수화교실, 토론 등 다양한 모임들도 있다. 하지만 한화로 한학기(약 4달)에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드는 비용이 부담이고 긴 여름방학 기간동안 식사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것이 단점이다. 공동으로 주방을 사용할 수 있지만 주 단위로 요금을 내야 한다. 세탁은 공용 세탁실에서 할 수 있는데 세탁기와 건조기를 이용할 때 마다 약간의 비용이 있다. 방의 형태로는 community와 suite가 있다. community는 복도식 건물에서 거실 없이 한개의 방에서 생활하는 형태이고 화장실은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공용화장실을 사용한다. suite는 2~4개의 방에서 사는 룸메이트들이 하나의 거실과 하나의 화장실을 공유하는 형태이다. suite의 경우 4~8명이 하나의 화장실을 사용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무선인터넷은 제공되지 않지만 랜선을 이용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기숙사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숙사 건물은 모두 9개가 있다.



기숙사 식당에서는 뷔페식 식단이 제공된다.

기숙사 홈페이지

[http://www.universitycourtyard.org/application\\_download.html#](http://www.universitycourtyard.org/application_download.html#)

기숙사 입주 지원서

[http://www.universitycourtyard.org/downloads/Download\\_Application\\_2011\\_2012.pdf](http://www.universitycourtyard.org/downloads/Download_Application_2011_2012.pdf)

학교 밖에서 살게 되면 한국에서의 자취와 비슷한 형태를 띤다. 학교근처에는 여러 Apartment들이 있다. 내가 살고 있는 University Village를 비롯하여 Bulldog Village, Palazzo 등이 대표적이다. University Village를 예로 들면 학교까지 도보로 약 15분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고 비용은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한달에 약 \$470~550 정도(식비와 전기세가 포함되지 않음)이다. Fitness center와 수영장, 컴퓨터실, 공부방이 있으며 역시 무선인터넷은 제공되지 않지만 랜선을 이용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거실&주방 하나에 4개의 방이 있는 형태로 방은 1인실이며 각각의 방에는 화장실이 하나씩 있다. 주방에는 가스레인지, 냉장고와 오븐, 전자레인지가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거실에는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는데 따로 비용이 들지는 않는다. 가장 큰 단점은 식사를 본인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것과 방음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주로 월마트에서 식료품을 사게 되는데 가장 가까운 월마트도 걸어서는 가기 힘든 거리에 있기 때문에 큰 애로사항이다.





월마트, 한국의 여느 대형마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차가 있는 친구에게 부탁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버스, 택시를 이용하여야 하는데 대중교통이 불편한 프레즈노에서는 이마저도 쉽지 않다. 식비로는 한달에 약 \$150~\$200 정도 쓰게 된다. 나는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미리 계약을 해 놓고 간 상태라서 다른 선택이 없었지만 근처 호텔에서 며칠 묵으면서 발품을 팔아 숙소를 구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조건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가장 싼 가격으로는 한달에 \$330짜리 방도 있다.



아파트 형식의 University village, Fitness center

University village <http://uvfresno.com>



2층 주택 형태의 Bulldog village

Bulldog village <http://www.bulldogvillage.com>

Palazzo <http://www.palazzofresno.com>

## 4. 학교 생활



학교 중앙의 분수대



캠퍼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람쥐

11월쯤에 봄학기 수강신청을 하게 된다. 이 때 주의해서 하지 않으면 여러가지 추가 비용이 있을 수 있다. 12학점을 초과하게 되면 1학점당 \$100을 추가로 내야하고 나중에 과목을 변경하게 되면 한과목당 \$300의 비용이 있다. 하지만 CSU의 과목이나 교수님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고 한국의

모교에서 학점인정을 받기위해 담당교수님과 과목에 대한 상담을 해야하는 등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영어에 자신이 없으면 아무래도 재무나 회계쪽의 과목을 수강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숫자와 기호로 대화하는 과목이기도 하고 다른과목들보다 팀별 과제의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현재 수강하고 있는 과목들을 소개해 보겠다.

#### ▶ACCT 4A

기초적인 회계과목으로 한국에서 회계학원론을 들었다면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는 과목이다. 무엇보다 Timothy Baker교수님의 깨끗한 발음이 도움이 된다. 수업시간에 I-clicker라는 '교수님께서 수업시간에 내는 퀴즈에 답하는 기계'가 필요하고 매주 Assignment가 있다.

#### ▶BA 105W

Bussiness Communication 과목으로 비즈니스 문법, 화술 등 여러가지 대화스킬들에 대해 배우게 된다. Native들과 Communication skill을 배운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이곳 학생들도 익숙하지 않은 과목이기 때문에 문법실력을 발휘해 볼 기회일 수 있다. 다만 팀별로 해야하는 과제가 있다. 교수님은 Dennis Mohle.

#### ▶FIN 122

미국의 경제 부서들과 시장경제에 대해 배운다. 경제학 원론보다 높은 수준으로 전에 원론을 수강하지 않았다면 이 과목을 수강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미국의 연방은행, 시장경제 등에 대해 배우기 때문에 처음에는 생소할 수 있다. 팀은 없고 개인적으로 해야하는 Assignment가 하나 있는데 비중이 큰 편이다. 교수님은 Elizabeth Steinke.

#### ▶MGT131

국제경영학으로 여러 나라들(주로 아시아, 남미의 개발도상국과 BRICS)의 경영환경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다. 교수님은 Barry J.Bennett으로 턱수염이 인상적인 교수님이다. 앞서 한국에서 온 선배 교환학생들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고계신 분으로 교환학생들에게 매우 친절하시다. 수업의 비중은 크지 않으며 팀별로 나라를 하나 정해서 그 나라의 경영환경에 대해 조사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대부분의 상경계열 수업을 듣게 되는 Peter



학교 이름이 새겨진 정문의 팻말과 Cremen

미국은 책값, 특히 전공서적의 가격이 매우 비싼편(새 책 기준으로 한권에 약 \$100 ~ \$200)이다. 따라서 새 책을 사기보다는 중고책을 사거나 빌리는 것을 추천한다. 중고책이나 대여책이 없어 새 책을 사게 되더라도 학교 내 서점보다 Amazon과 같은 온라인 서점을 이용하는 편이 더 싸다. [www.chegg.com](http://www.chegg.com)에서는 학기가 시작할 때 책을 빌려주고 학기가 끝나면 되돌려 받는 방식의 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Henry Madden Library

학교의 유일한 도서관인 Henry Madden 도서관은 '공부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한 한국의 도서관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도서관 안에서 공부도 하지만 토론하기도 하고 식사를 하기도 하고 전화통화도 한다.



도서관이 붐비기는 한국이나 여기나 마찬가지다.

보다 조용한 환경을 원하면 1인 공부방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도서관에는 Learning Center가 있어 튜터에게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학교가 꽤 넓은 편이고 건물들도 서로 떨어져있기 때문에 자전거가 있으면 더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 학교에 Red bike라는 자전거 대여 프로그램이 있는데 \$100의 디파짓과 \$5 이라는 싼 가격에 한학기동안 빌려준다. 상태가 좋은 자전거를 빌리려면 최대한 빨리 움직이는 것이 좋다. Student Union 건물 지하에 가면 경찰서가 있는데 그 곳에서 빌릴 수 있다. 경찰서 맞은편에는 우체국이 있어서 우편 업무를 볼 수도 있다.



Student Union

학교 외곽에는 Recreation Center가 있는데 Fitness Center와 스쿼시, 배구, 농구, 에어로빅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이다.



Recreation Center

CSU학생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Locker가 필요하면 \$45를 내고 한학기동안 빌릴 수 있다.

## 5. 기타

프레즈노가 그리 작은 도시는 아니지만 대중교통은 없는 것 보다 조금 나은 정도의 수준(대학교 정문 앞의 버스정류장에 버스가 30분에 한대씩 지나가고 택시는 콜택시를 부르지 않으면 정말 보기 힘들다)이라 마음대로 이동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자동차를 장만하기에도 우선 가격이 만만치 않고 만에 하나 있을 사고에 대한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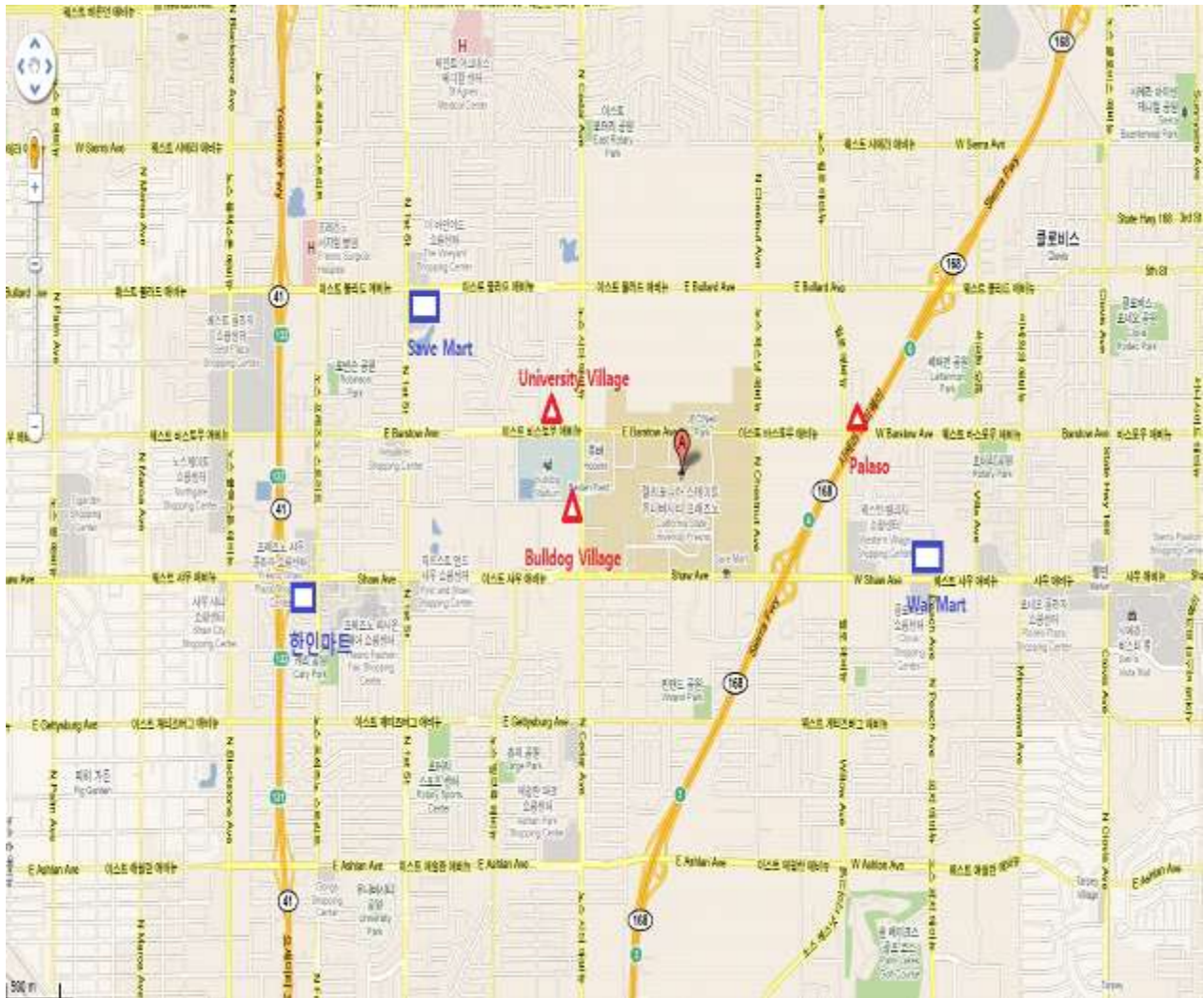


30분에 한대씩 있는 버스

휴대전화 또한 꼭 필요한 것 중 하나일 것이다.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이 Cricket인데 한달에 \$35 의 가격으로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3달치 요금을 한꺼번에 내면 4달을 이용할 수 있다. 또 하나를 소개하자면 T-Mobile이 있다. 요금은 Cricket의 절반 수준이지만 사용할 수 있는 통화량에 제한이 있다.

가끔 한국 음식이나 그립거나 한국 물품이 필요하면 Shaw Avenue와 Fresno Street가 만나는 곳에 위치한 한인마트를 이용하면 된다.





젓가락부터 고추장, 김치 등 필요한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아플 때는 학교 안에 있는 Health Center를 이용하면 된다. 학교내에 있는 의료시설답지 않게 규모가 꽤 크며 각종 신체검사도 한다. 미국은 의료비용이 많이 드는 나라이지만 등록금과 함께 납부하는 보험료가 이곳에서의 비용을 충당하기 때문에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다.

학기의 시작이 1월 중순으로 빠른 만큼 여름방학이 매우 길다. 5월 중순부터 9월 개강까지가 방학이니 4개월에 가까운 여름방학을 보내게 된다. 프레즈노는 캘리포니아주의 중심에 위치하여 2개의 큰 고속도로를 끼고 있고 샌프란시스코나 LA, 라스베가스, 그랜드캐년, 요세미티 국립공원 등을 여행하기에 좋다. 긴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주변을 여행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도 젊은 날을 의미있게 보내는 일이 될 것이다.

기타 문의사항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International Business Program의 Coordinator인 Tatyana에게



문의하면 답을 얻을 수 있다.

(559) 278 4653

tryabova@csufresno.edu

## 6. 맺는 말

작년, 교환학생을 준비할 때 1년간 혼자서 생활해야 한다는 걱정에 이것저것 알아보고 빠트린 것은 없는지 살피며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선배들의 조언이나 경험담이 있었다면 훨씬 더 잘 준비된 모습으로 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한달 남짓한 짧은 시간의 경험이었고 아직 나도 모르는 부분이 많지만 최선을 다해보았다. 이 보고서가 앞으로 CSU Fresno에 오게 될 후배들에게 작은 길잡이가 될 수 있다면 보람이 될 것이다.

### **Any futher questions:**

E-mail [obm87@nate.com](mailto:obm87@nate.com)

KT인터넷 전화 070 8871 6108